

새 음반

로드 스튜어트 '휴먼'

지금까지 모두 6천 3백만장이 넘는 앨범을 판 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팝스타 로드 스튜어트가 3년 만에 내놓은 앨범이다. 특별한 히트곡 특소리에 담긴 감미로운 발라드가 매력이다. 타이틀곡 '휴먼'은 플라멩코 리듬이 섞인 독특한 발라드가 후반부의 비중이 넘치는 전자기타 연주가 인상적이다.



그래미 노미니 2001

지난 21일(미국 현지 시간) 시상식이 열렸던 그래미상의 주요 후보곡들을 모은 앨범이다.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스티브 니콜스, 랩 공연 3개 주요 부문의 상을 받아 최고의 래퍼 자리를 확고히 한 에미넴을 비롯해 데스티니즈 차일드·마돈나·렌싱·백스트리트 보이즈·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슈퍼스타들의 노래가 담겨 있다.



리키 마틴 '사운드 로디드'

정상의 남자 팝스타 리키 마틴과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듀엣곡 '노바다 윌츠 투 비 룰라'를 불렀다. 리키 마틴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새 앨범 '사운드 로디드'에 이 노래를 추가해 앨범을 새롭게 발매했다. '노바다...'는 '사운드 로디드' 앨범에 리키 마틴의 솔로곡으로 들어왔던 발라드이다. 아길레라와 함께 부른 새 버전은 원곡보다 훨씬 즐겁다.



조 '마이 네임 이즈 조'

보이즈투벤치 이후 최고의 리듬 앤드 블루스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의 새 앨범 '마이 네임 이즈 조' 앨범 차트를 올라 있는 이 음반은 최근 세번째 싱글 '스티터'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 '스티터'는 미스터키와 랩을 맡아 함께 부른 이색적인 R&B곡이다.



네 남자의 사색동화

지난 연말 합동공연이 흥제가 됐던 윤상·이현우·윤종신·김현철 등 네 남자의 노래를 모은 앨범이다. 김현철의 '일생일사', 이현우의 '머저진 다음 날', 윤종신의 '백옥', 윤상의 '사랑이름' 등이 들어있다.



여보세요, 현우·광민·봉근씨

깊은 밤 고급라이브 '멋져'

9년째 방송되는 MBC '수요예술무대'

"TV가 대중음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10대 위주의 쇼 프로그램 일색인 상황에서 어떤 의무감을 느껴죠. 제대로 된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갈수록 커집니다." (이현우)

한국에서 9년째 계속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불러도 될까.

1992년 10월 방영을 시작한 MBC '수요예술무대'가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받으며 최고의 자리를 받으며 갈수록 완숙미를 뽐내고 있다.

이번 주 방영에는 3백60회다. 초창기엔 재즈 연주를 주요 메뉴로 했지만 6년 전에 클래식·가요에도 문호를 연 이후로 크로스오버적인 독특한 음악 프로그램이 됐다.

매주 수요일 밤 12시30분, 다른 시구들이 모두 잠든 뒤 불을 끈 조용한 거실에서 '수요예술무대'를 보는 재미로 한 주를 허리를 무너뜨릴 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많은 사람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도 칭찬해오 무방하리라.

'수요예술무대'를 만드는 세 남자, 한 봉근(43)PD와 진행자인 피아니스트 김광민(41), 가수 이현우(36)는 '행·아우' 하는 친한 사이다.

흔히 PD와 진행자 사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 프로그램의 최대 매력은 세계 수준의 유명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을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재즈 피아니스트 해비 핼크·릭 코피아, 트럼펫 연주자 쉐론 마셜리스, 색소폰 연주자 케니 지, 성악가 조수미

등 내로라하는 뮤지션들의 공연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외국에도 그리 많지 않다. 이제 한국을 찾는 유명 뮤지션이라면 거의 전부 '수요예술무대'에서 공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로는 유명 아티스트들과 즉흥 공연을 펼칠 만큼 실력있는 뮤지션인 김광민·이현우의 탁월한 음악 실력도 이 프로그램을 빛나게 하는 요인이다.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진행을 맡은 김광민은 미국 버클리음대에서 공부한 국내 정상급 재즈 피아니스트. 3년전

가수·피아니스트·PD로

제작·진행 이끌며

來韓한 외국 뮤지션을

반드시 거치는 곳

부터 통역여대 실용음악과 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가수 이현우는 4년 전 공동 진행자로 합류했다. 이현우가 합류한 이후 팝·록 뮤지션들도 출연하는 등 프로그램의 폭이 넓어졌다.

9년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한 PD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시정들을 최고로 치는 한국의 방송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술무대'가 대표적인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로 평가되며 장수하고 있는 것은 질 위주의 프로그램 제작을 포기하지 않는 그의 고집 덕분이다.



"행, 배 즐기기"(이현우), "홍강이라고 꼭 좀 써주세요"(김광민), "진행자들이 맡을 안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한봉근 PD), 신인식 기자

"수준있는 뮤지션들만 골라 무대에 세우는 데는 일점 타협의 여지가 없지요. 수요예술무대가 한국 대중음악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더 바랄 건 없습니다."

국내 가수들에게 좀 더 많은 출연 기회를 주고 싶지만 손색없는 라이브 공연을 할 만큼 역량이 있는 가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제작진의 고민이다.

최재희 기자

<chec@joongang.co.kr>

플라이투더스카이 2집 '악속' 내

"방송 무대서 림싱크 안해요"



4집 '꽃'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수 이소라가 조금 특별한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 제목은 '에브리씰 세즈 아이 러브 유', 특 수효과를 많이 활용한 무대에서 탭댄스와 발레, 현대무용과 내 노래를 뒤어 작은 딸인 하나 하나를 드러내고 싶단다"고 공연을 준비하는 마음을 밝혔다.

이전 공연에서는 4집에 수록된 '바이 바이' '로미오' '남에게 나를 바친다' '그대와 춤을' 등을 부를 예정. 이외에도 '남 행복해' '기억해줘' '처음 느낀 그대' 등 히트곡들을 뮤지컬 스토리에 맞춰 부르게 한다. 해외 연인으로 끝나는 뮤지컬 마지막 곡은 '영혼'이다.

공연 장소도 조금 색다르다. 지난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가 열렸던 코엑스 오라토orium. 이곳에서 공연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새 앨범 '꽃'은 지금까지 28만장 정도 팔렸다. 이소라의 명성을 생각하면 판매량이 저조한 편. 이번 공연은 그녀가 앨범 판매량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음악적 발전을 모색하는 가수로 남을 수 있도록 가능해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3월 1일 오후 4시30분·밤 7시30분, 2일 밤 7시30분, 3일 오후 4시30분·밤 7시30분, 4일 오후 3시·6시, 02-575-3003. 최재희 기자

"10대 초중반 여학생 위주를 넘어 20대 이상으로 팬층을 넓혀주고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데이 바이 데이'로 10대 여성팬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플라이투더스카이가 2집 '악속'을 내었다.

플라이투더스카이는 올해 열아홉살 동안인 환희·브라이언·두 명으로 구성된 듀오. 환희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브라이언은 미국에서 나고 성장한 미국 시민권자다.

유영진이 주 곡을 만들었던 1집과 달리 2집에는 유영진 외에도 지극민·최수영 등

여러 작곡가가 참여했다. 특히 R&B 가수 김조용이 작곡한 '아이 윌트 유 아이 디 유'가 관심을 끈다. 최근 해체설이 나오고 있는 인기 밴드 H.O.T의 멤버 김태우가 만든 '아이 윌트 '아이 러브'도 들어있다.

"2집 출반 이후 방송 무대에서도 림싱크 대신 심재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림싱크가 오히려 불편해요."

플라이투더스카이는 10대를 겨냥한 댄스 그룹들을 내세워 한국 대중음악의 시장을 장악한 SM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기대주. 이번 앨범에도 김태우·보아 등 한 시구들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등 적극 지원했다. 역시 H.O.T 멤버인 장우혁은 타이틀곡 '악속'의 안무를 맡았다.

글·최재희, 사진·최정호 기자



“탭댄스 현대무용 함께 뮤지컬처럼 꾸밀래요”

4집 낸 이소라의 색다른 콘서트

4집 '꽃'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수 이소라가 조금 특별한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 제목은 '에브리씰 세즈 아이 러브 유', 특 수효과를 많이 활용한 무대에서 탭댄스와 발레, 현대무용과 내 노래를 뒤어 작은 딸인 하나 하나를 드러내고 싶단다"고 공연을 준비하는 마음을 밝혔다.

이전 공연에서는 4집에 수록된 '바이 바이' '로미오' '남에게 나를 바친다' '그대와 춤을' 등을 부를 예정. 이외에도 '남 행복해' '기억해줘' '처음 느낀 그대' 등 히트곡들을 뮤지컬 스토리에 맞춰 부르게 한다. 해외 연인으로 끝나는 뮤지컬 마지막 곡은 '영혼'이다.

공연 장소도 조금 색다르다. 지난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가 열렸던 코엑스 오라토orium. 이곳에서 공연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새 앨범 '꽃'은 지금까지 28만장 정도 팔렸다. 이소라의 명성을 생각하면 판매량이 저조한 편. 이번 공연은 그녀가 앨범 판매량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음악적 발전을 모색하는 가수로 남을 수 있도록 가능해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3월 1일 오후 4시30분·밤 7시30분, 2일 밤 7시30분, 3일 오후 4시30분·밤 7시30분, 4일 오후 3시·6시, 02-575-3003. 최재희 기자

한방음양다이어트로

다이어트 한방에 끝냈어요!

“출산후 20kg 감량에 성공한 체험적 다이어트 비법”

한방음양 다이어트로 다이어트 한방에 끝냈어요, 출산 후 70kg에 달하던 체중을 20kg이나 줄이는 기적을 얻으셨던 강본인, 유혜정의 체험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합니다.(기사요용 스포츠조선 연재)

신동방 한방다이어트를 진행해보면 마치 스키장이 물이 빠지듯이 감량이 속속! 너무 많은 몸매의 변화에 놀라시게 합니다.

양제질 비만과 음제질 비만은 비만의 원인과 다이어트 방법이 다릅니다!

비만이란 음과 양의 조화가 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비만인은 장부의 불균형으로 지방, 수분, 노폐물들이 체내에서 활용되거나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많은 양이 축적되어 있어 에너지 소비능력이 정상인보다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청소년 비만 클리닉

청소년 비만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 청소년 지방세포는 부피와 숫자가 늘어난다. 더 늦기전에 음양의 균형을 깨뜨려 줄여주세요.

스트레스 비만 클리닉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여성,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들은 양질의 음식,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다이어트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동방 한방음양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스트레스에 강한 체질로 만들어 지방이 잘 분해되도록 확실한데 도움을 줍니다.

신후 비만 클리닉

방식, 조리법 등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지방이 잘 분해되도록 확실한데 도움을 줍니다.

스피드 다이어트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통해 비만 원인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한방에 많은 양의 지방을 분해하여 체중을 줄여 줄 수 있는 고효율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자료를 제공, 신동방 한방음양 다이어트

서울 02-470-3700 · 부산 051-865-1177 · 울산 052-283-5111
대구 051-222-1177 · 광주 053-142-9778 · 제주 064-74-7111

상담문의 신동방다이어트 02)470-3700